

6/15(수) 느헤미야 묵상 11

느헤미야 6:15-19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에 수많은 공격과 영적인 방해들이 많았지만 성벽은 결국 오십이 일만에 완성이 됩니다. 이는 성전 재건이 멈추기를 거듭하다가 약 16년만에 완성된 것과 비교할 때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52일

느헤미야에 의한 성벽 재건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오십 이일이 아니라 팔백 사십 일이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이같은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기간을 언급합니다(15절,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나매”**). 비록 느헤미야도 성전 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방의 온갖 훼방꾼들의 영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그는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끝냅니다. 성벽 재건이 이토록 빨리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고백 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처음부터 느헤미야를 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그의 아우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안타까운 형편을 들었을 때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가운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위한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왕의 술말은 관원이 되게 하십니다(느 1:10하, **“..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결과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의 자격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느 5: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부터 제삼십이년까지 십이 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술말은 관원이자 유다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다 땅에서 활동하던 훼방꾼들은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인 방해 공작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성전 재건이 중간에 막히게 된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을 허락한 고레스 왕 때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마리아인들의 고소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고레스가 왕좌에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캄비세스 왕으로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약 16년간이나 성전 재건은 멈추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만약 성벽 재건이 훼방꾼들에 의해 지연될 경우 자신을 유다 총독으로 삼은 아닥사스다 왕이 왕좌에서 물러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성벽 재건을 빠르게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굳건한 믿음과 철저한 계획 그리고 술선수범하는 자세로 유다 백성들에게 성벽 공사의 일을 잘 분담 시킴으로써 52일 만에 역사를 완성합니다.

원수들의 낙담

느헤미야의 이같은 놀라운 성과로 인해 주위에 유다 백성들을 둘러싼 대적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여기서 ‘크게 낙담했다’는 것은 ‘자신감을 상실했다’ 또는 ‘자존심을 손상 당했다’는 뜻입니다.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자신감을 상실한

경우는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는 기사는 이곳이 처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만 믿고 그의 도구인 사람의 순종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지 고생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세계 선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유다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순종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제 목상한 대로 스마야와 같이 뇌물에 넘어가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제사장들도 존재했습니다. 또 성벽 재건을 방해한 주동 인물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사돈 관계를 맺고 도비야를 느헤미야에게 선하게 소개하는 유다 백성들도 있었습니다(18-19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들 중 ‘아라’는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돌아온 유력한 족장으로 추정되고, 또 ‘므술람’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 때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목상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도 있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비야와 사돈을 맺고 살았던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살전 5:21-22,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범사에’와 ‘어떤 모양’이라는 것은 그 일에 어느 것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회색지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의 믿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이 모습이 서로 다르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왕 믿은 김에” 라는 베스트셀러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었으면 모르겠지만 그 책은 주님을 “이왕 믿은 김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영적으로 무너지고 파손된 이 세상과 교회를 보시면서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서 무너진 이 땅과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목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목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에 동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소서. 더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땅에 정의와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이산 가족들과 타국에 피신한 실항민들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교육 부서, 오늘은 Youth Group 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협력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페루 황윤일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